

한국의 홍콩 스타 수용과 팬덤의 문화적 함의*

김정은**

— 목 차 —

1. 서론
2. 이소룡: 강인한 남성과 영웅, 남성들의 워너비 스타
3. 주윤발: 나쁜 남자와 의리/순정의 사나이, 성별을 초월한 시대의 아이콘
4. 장국영: 원조 꽃미남 스타, 여성들의 영원한 오빠
5. 결론

국문초록

홍콩 스타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과급력은 매우 컸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홍콩 스타들의 한국 수용과 홍콩 스타 팬덤의 문화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1990년대 한국에서 문화 아이콘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던 대표적인 홍콩스타인 ‘이소룡’, ‘주윤발’, ‘장국영’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소룡은 한국에서 홍콩영화 속의 ‘배우’이자 ‘절권도’라는 무술을 구사하는 한 명의 ‘무술인(스포츠맨)’으로서 혼종적 정체성을 가지고 수용되었고, 그의 팬덤은 남성 팬들이 주요 구성원을 이뤘다. 주윤발은 나쁜 남자와 의리/순정의 사나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를 구축하며, 성별을 초월한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그의 팬덤은 남성과 여성 팬들을 모두 아울렀다. 장국영은 원조 꽃미남 스타로서 그의 사후에도 여성 팬들의 영원한 오빠로, 그의 팬덤은 여성 팬들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 이소룡과 주윤발의 남성 팬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4465)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학부(중국어교육전공) 객원강의교수

은 여성 중심의 대중문화 팬덤에서 남성 팬들의 활동과 가능성을 구축했고, 주윤발과 장국영은 남성다움만을 강조하던 기존 남성 스타들과는 다른 이미지로 한국의 남성 스타 수용에 다양성을 제공했다. 또한, 이들의 한국 수용과 그들의 팬덤은 한류스타의 초국적 활동과 한류 팬덤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키워드: 홍콩 스타, 홍콩스타 팬덤, 이소룡, 주윤발, 장국영, 한류스타의 초국적 활동, 한류 팬덤 문화

1. 서론

홍콩영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무협영화’와 ‘쿵푸영화’, 그리고 ‘홍콩누아르(Hong Kong Noir)’로 대표되는 ‘장르’와 그리고 이러한 장르의 유행을 이끌었던 ‘감독’과 ‘스타(배우)’에 대한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영화를 구성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배우들인데, 배우들 없이는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와 특출한 감독, 그리고 제작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다.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나 지명도가 높은 스타들은 영화의 완성도와 흥행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특히 홍콩영화를 논의함에 있어 영화의 주연을 맡은 배우들, 소위 말하는 스타들을 빼놓는다면 홍콩영화의 핵심층위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홍콩영화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 다른 아시아 영화들보다 유독 ‘오락성’과 ‘상업성’에 치중하는 상업영화의 제작이 두드러졌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스타가 홍콩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이소룡(李小龍)’을 필두로 많은 홍콩 스타들은 다양한 이미지와 기호로써 소구되며 각기 다른 팬덤을 형성하였고, 한국 내 홍콩영화와 칸토니즈 팝의 인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이렇다 할

대중문화 아이돌(Idol)이 없었던 한국에서 홍콩 스타들은 그 공백을 메워 주기에 충분했고, 이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파급력 또한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홍콩 스타들의 한국 수용과 홍콩 스타 팬덤의 문화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70년대부터 1990년대 한국에서 문화 아이콘((Icon)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던 대표적인 홍콩 스타인 ‘이소룡’, ‘주윤발(周潤發)’, ‘장국영(張國榮)’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한국 수용과 그들의 팬덤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류스타의 초국적 활동과 한류 팬덤 문화 형성과의 영향 연구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이소룡: 강인한 남성과 영웅, 남성들의 워너비 스타

1967년 ‘호금전(胡金銓)’¹⁾과 ‘장철(張徹)’이 감독한 2편의 홍콩영화가 한국에 수입되어 흥행한 뒤로 ‘무협영화’²⁾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홍콩영화의 장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협영화와 달리 ‘쿵푸영화’³⁾

- 1) 본고에서 한중 수교 이전 홍콩영화 전성기 시절 한국에 수용되고 인기를 끌었던 홍콩과 대만 스타들의 인명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이 아닌 한국에서 통용되었던 방식에 따른다. 예를 들어 이소룡, 주윤발, 장국영, 주성치, 왕조현과 같이 한국에서 이들의 이름을 한자 독음으로 호명할 때 한국 스타와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문화 아이콘으로서 한국에서 소구되어 왔던 문화적 맥락과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2) 임대근은 “무협영화를 중국영화의 대표 장르로 손꼽기를 주저하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무협영화는 마치 할리우드의 서부영화(Western cinema), 일본의 사무라이영화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액션영화의 한 장르로서 동양적 정서와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무협영화’의 장르적 속성을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의 지속적으 로 펼쳐왔지만,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武)’와 ‘협(俠)’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모종의 근원적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무’란 무공(武功), 즉 무예의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고 ‘협’이란 인간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정신, 즉 오늘날 의 미로 하면 ‘의리’에 가까운 요소다.”라고 하였다. 임대근, 「장르: 중국영화의 갈래 들」, 『중국영화의 이해』, 서울: 동녘, 2008, 157쪽.
- 3) 안영은은 쿵푸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무’와 ‘협’의 정신이 강조되는

는 영화 속에서 스타의 몸과 그들의 ‘무술’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관객들이 자신의 몸과 무술에 오롯이 집중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쿵푸영화의 주인공들은 자연스럽게 매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쿵푸 스타들이 한국에서 본격적인 홍콩 스타 팬덤을 형성한 첫 번째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소룡’-‘성룡(成龍)’-‘이연걸(李連杰)’로 이어지는 ‘쿵푸 스타’의 계보에서 단연코 으뜸은 ‘이소룡’⁴⁾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주연한 ‘쿵푸영화’ <정무문(精武門, Fist Of Fury, 1973)>은 1973년 한국에 수입되어 개봉될 당시 315,579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그해 외화 최다 관객동원 영화로 기록되었다. 당시 한국영화 최다 관객동원 작품인 <이별(離別, Farewell, 1973)>(신상옥)이 154,967명의 박스오피스 기록을 세운 것을 감안할 때, 1973년도 흥행실적 1위의 영화는 단연코 <정무문>이다. 이 영화로 이소룡은 한국에서 명실상부한 스타로 자리 매김하였고, 처음으로 홍콩영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그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 자주 회자되고 사랑받는 대표적인 홍콩영화 스타가 되었다.

그가 유작인 <사망유희(死亡遊戲, The Game Of Death, 1978)>(미국)에서 입고 나온 ‘몸에 짝 달라붙는 검은 줄무늬가 있는 노란 트레이닝복’과 ‘쌍절곤’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한국영화나 TV 드라마와 예능, CF 등에서 종종 그의 모습을 흉내 낸 연예인이 등장한다. 심지어 유하

이들 무협영화의 경우는 이러한 특징이 잘 배어나도록 영화 속 배경 또한 중국의 고대시기(명, 청대)이며 이들은 주로 검을 사용한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쿵푸영화는 근현대를 배경으로 하며 주로 주먹과 발차기를 위주로 하는 무술동작이 강조된다.” 안영은, 「이소룡(李小龍) 신화는 끝나지 않았다」, 『중국현대문학』 제78호, 서울: 한국현대문학학회, 2016, 165~166쪽.

- 4) “리 샤오룡의 이미지는 ‘동양’적이면서도 ‘서양’적이다. 동시에 ‘동양’적이지도 않고 ‘서양’적이지도 않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 아버지와 독일계 혼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영화들도 미국과 이탈리아, 홍콩, 일본, 한국, 타이랜드 등을 넘나들며 만들어 졌다. 그는 미국학교 출신 영화배우 브루스 리(Bruce Lee)이자 절권도(截拳道)를 창시한 중국인 무술가 리 샤오룡이며, 1970년대 한국 영화팬들의 우상 이소룡이었다.” 강경석, 「분노의 주먹: 브루스 리·리 샤오룡·이소룡」, 『플랫폼』 2008년 5·6월호(통권9호), 인천: 인천문화재단, 2008, 90쪽.

감독은 그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Spirit Of Jeet Keun Do, 2004)>에서 이소룡에 대한 노골적인 오마주(hommage)를 보여 줬고⁵⁾, SBS에서 방영한 적 있는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2000.12.18.~2002.02.22.)에서 주요 출연진 중 한 명은 시트콤의 캐릭터 나이가 1985년생의 17세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노란 '이소룡 트레이닝복'을 즐겨 입고 등장했다. 또한, 2020년 1월 5일 방송된 MBC 예능 <복면가왕>에서 1988년생의 한 출연자는 '브루스 리'라는 이름으로 노란 트레이닝복을 입고 출연했다.(아래 <그림1> 참고) 이러한 사례들은 이소룡 사후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소룡이 대중매체에 의해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으며 또 여전히 이소룡의 이미지를 추억하고 모방하는 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1> 예능 <복면가왕> 출연자 브루스리



이소룡은 <당산대형(唐山大兄, The Big Boss, 1971)>, <정무문>, <맹룡과 강(猛龍過江, The Way Of The Dragon, 1972)>, <용쟁호투(龍爭虎鬪, Enter The Dragon, 1973)>, <사망유희> 등 그가 살아생전에 촬영한 영화들 속에서

5) 영화에서 주인공인 현수(권상우 분)와 친구들은 이소룡을 최고의 우상으로 여기며 쌍절곤을 돌리며 절권도를 연마한다. 또한, 현수는 '학교장' 자리를 놓고 선도부장인 종훈(이종혁 분)과 최후의 일전을 벌일 때 밤새워 연습한 쌍절곤을 들고 학교 옥상으로 향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주인공 현수와 친구들은 이소룡의 몸짓을 흉내내기도 한다. 영화의 곳곳에서 감독의 이소룡에 대한 오마주를 읽을 수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무술로 단련된 강인한 남성적 몸을 과시하며, 영화의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영웅적 캐릭터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영화 속에서 이소룡은 때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맞서는 민족적 영웅으로, 때로는 동포들을 대표해 서양의 백인 남자나 비중국인들에 맞서는 의로운 인물로 분한다. 혹자는 당시 한국에서 이소룡의 인기를 한국의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 식민지 경험에서 찾기도 한다.⁶⁾ 이것이 바로 이소룡이 소비되던 시기에 한국 사회가 이소룡의 신체에 대한 동경을 바탕으로 이소룡이 구축한 이미지를 수용하고 소환하게 된 시대적·문화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열광했던 팬층은 어떻게 될까? 안영은은 “하위남성 주체가 주인공인 영화의 주요 관객들은 주로 남성들이 주를 이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당시 실제 영화 관객의 성비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당시의 신문 기사들은 이러한 유추를 뒷받침해 준다.”⁷⁾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보면 이소룡은 1970년대 당시 남성들의 워너비 스타로서 한국의 많은 남성을 그의 팬으로 포섭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소룡의 팬들은 1970년대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를 추억하며 소환하고 있다.

이소룡이 사망한 지 30여 년이 훌쩍 지난 2004년 8월 31일 개설된 네이버의 이소룡 팬카페 ‘추억의 이소룡월드(<https://cafe.naver.com/lxl>)’는 2023년 11월 14일 현재 3,657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몇몇 팬들을 중심으로 2014년 2월 <이소룡월드> 매거진 창간호 한정판(아래 <그림2> 참고)을 발행⁸⁾했는데, 이 팬카페의 매니저는 한정판 완성 임박을 알리는 게시물에서 “저의 40년이 넘는 이소룡 사랑의 결정체쯤 될 것 같습니다. 저 외에도 글이 실리신 분들 그리고 모든 이소룡 팬들께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겁니다.”⁹⁾라

6) 자세한 내용은 이영재, 「중공업 하이모던 시대의 아시아적 신체-1970년대 한국에서의 홍콩 영화의 수용」, 『여성문학연구』 제30호, 서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54~169쪽 참고.

7) 안영은 위의 글, 185쪽.

8) 한정판 주문을 접수하는 게시물: <https://cafe.naver.com/lxl/14461>, 검색일: 2023년 11월 14일.

9) 한정판 완성 임박을 알리는 게시물: <https://cafe.naver.com/lxl/14442>, 검색일: 2023년 11월 14일.

고 하며 오랜 시간 이소룡의 팬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 게시물은 매거진에 수록될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글들의 작성자 이름으로 유추해 보면 남성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¹⁰⁾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소룡의 팬층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림2> 매거진 <이소룡월드>



이소룡의 팬덤이 남성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대중문화 팬덤에서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 팬덤에 대한 여러 기존 연구에 의하면 대중문화 팬덤은 10~20대 여성이 주축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팬덤의 구성원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소룡 팬덤은 대중문화 팬덤 이라기 보다는 남성 위주의 ‘스포츠 팬덤’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10) 한정관 완성 임박을 알리는 게시물: <https://cafe.naver.com/lxl/14442>, 검색일: 2023년 11월 14일.

팬덤의 대상이 되는 스타의 유형에 있어서도 스포츠 스타의 뛰어난 운동(신체) 능력에 대한 경외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스포츠 팬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소룡의 팬들이 이소룡의 운동(신체) 능력을 매우 동경했다는 사실은 한국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유하 감독의 산문집 <이소룡 세대에 바친다>에서도 잘 드러난다.¹¹⁾



이 같은 사실은 위 <그림2>의 <이소룡월드> 매거진 표지에서도 극명하다. ‘특별기고-이소룡과 중국무술’, ‘집중조명 지쿤도[절권도]’라는 2개의 글은 표지에서 다른 글에 비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고 글씨의 크기도 다른 글들보다 훨씬 크다. 또한, 위 <그림3>의 이소룡 팬카페 메인화면 사진을 보면 팬카페의 8개의 게시판 중 하나는 ‘절권도 관련 자료’를 전문으로 올리는

11) “이소룡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 아니 이소룡이 되고 싶다는 욕망. 과장되게 말하자면, 그 욕망이 내 교복의 나날을 견디게 해주었다.” 유하, 『이소룡 세대에 바친다』, 파주: 문학동네, 1995.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6281, 검색일: 2023년 11월 14일.

게시판이다. 이처럼 이소룡을 논함에 있어 ‘절권도’는 불가분의 중요한 요소로, 이는 이소룡이라는 스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호에서 ‘무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소룡이라는 스타는 한국에서 홍콩영화 속의 ‘배우’이자 ‘절권도’라는 무술을 구사하는 한 명의 ‘무술인(스포츠맨)’으로서 혼종적 정체성을 가지고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주윤발: 나쁜 남자와 의리/순정의 사나이, 성별을 초월한 시대의 아이콘

1980~1990년대 ‘오우삼(吳宇森)’과 ‘서극(徐克)’이 감독한 ‘영웅본색 시리즈’와 ‘첩혈쌍용 시리즈’가 한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탄생한 ‘홍콩누아르(Hong Kong Noir)’¹²⁾라는 홍콩 뉴웨이브(Hong Kong New Wave)¹³⁾의

12) “‘홍콩 느와르’라는 말은 <영웅본색>으로부터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군의 홍콩관 액션·드릴러·현대물을 가리키는 뜻으로 한국의 영화 저널리스트들이 처음 쓰기 시작하였다. 이 말의 아버지격의 표현은 “필름 느와르(film noir)”라는 프랑스 합성어이다. [...] 그렇다면 ‘홍콩느와르’라는 말은 얼마나 그 어원에 값하는 무게를 가지는 것일까? 일단 대도시라는 배경, 암흑가를 누비는 주인공들, 좌절과 패배가 예정된 결말, 영화와 관객이 맺는 통속적인 관계 등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필름 느와르가 이전의 헐리우드 영화전통에 대한 대항적 텍스트로 읽힐 수 있는 반면에, 홍콩 느와르는 그 자체로서 ‘잡종(hybrid)’ 장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필름 느와르에서는 볼 수 없는 휘황찬란한 총격전, 화려한 영화적 기교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다. [...]” 구회영, 『영화에 대하여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서울: 한울, 1991:1994, 203~204쪽.

13) “<뉴 웨이브>는 1960년대에 실패한, 서구적 장르에 의한 광둥어 영화의 현대화 계획의 성공적인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감독들은 폭력과 선정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상업성을 추구하고, 그런 요소를 주류 상업 영화에 통합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피를 공급하고 영화계의 변화를 촉진했다. 이들이 영화업계에 기여한 점은 많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기술수준의 향상이었다. 이들의 전문가적인 접근으로 각 분야, 특히 쿵푸 영화에서 자주 간과되었던 미술 분야의 직능별 한계는 더욱 분명해졌다.” Geoffrey Nowell-Smith 편집, 이순호 외 옮김, 『홍콩의 대중영화』, 『옥스퍼드 세

최대 수혜자는 바로 ‘주윤발’이었다. <영웅본색2(英雄本色 II, A Better Tomorrow II, 1987)>에서 ‘바바리코트’를 휘날리며 ‘선글라스’를 끼고 ‘성냥개비’를 입에 문 주윤발의 이미지는 홍콩누아르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다. <영웅본색2> 이후 한국에 수입된 홍콩영화의 편수는 비약적인 증가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제재와 장르 또한 확장되었다. 종전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무협과 쿵푸의 액션 영화 위주에서 홍콩누아르와 코미디, 멜로와 SFX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소개되었고, ‘황비룡 시리즈’와 ‘강시 시리즈’, ‘도신 시리즈’, ‘천녀유혼 시리즈’, ‘동방 불패 시리즈’ 등의 다양한 제재의 영화들이 수입되어 한국에서 홍콩영화는 진정한 황금기를 구가하게 된 것이다.¹⁴⁾ <영웅본색2>의 히트는 홍콩영화의 한국 판권을 200~300%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주윤발이 이러한 현상을 야기한 주범으로 꼽혀진다. 이는 당시 한국에서 주윤발이 스타로서 큰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시이다. 이러한 주윤발의 인기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2015.11.06.~2016.01.16.)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주윤발은 출연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킬러, 조직 폭력배, 도박사 등 어둠의 세계에 있는 인물을 연기했다.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 캐릭터이다. 하지만 진정한 ‘악인’은 아니다. 때로는 약자의 편에 서서 진짜 ‘악인’에게 복수하거나 의리를 지키는 사나이로, 때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지키고 순정적 사랑을 바치는 ‘마초(macho)’적 남성성을 어필했다. 주윤발이 보여주는 마초 이미지는 마초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인 ‘기백있고 늠름한 남성다움’과 확대된 의미인 ‘권위적 남성중심주의’¹⁵⁾의 면모를 모두 가지고 있다. 주윤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영웅본색2>의 쌍권총 액션 씬은 약자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거나 의리를 중요시하

계영화사』, 서울: 열린책들, 2005, 833쪽.

14) 자세한 사항은 金貞恩, 「香港電影轉入韓國的歷史與現狀」, 『韓中言語文化研究』 第18輯, 서울: 社團法人 韓國現代中國研究會, 2008, 343~356쪽 참고.

15)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마초문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816&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23년 11월 14일.

는 남자로서 그의 ‘기백있고 늠름한 남성다움’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반면 <가을날의 동화(秋天的童話, An Autumn's Tale, 1987)>에서 주윤발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 고독한 눈빛의 로맨틱한 남성 이미지와 더불어 ‘권위적 남성중심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한국과 홍콩을 막론하고 아직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서 인식하였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성 중심의 사고가 팽배해 있었다. 당시의 영화들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었고, <가을날의 동화>의 주윤발의 캐릭터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윤발의 이러한 상반된 이미지는 한국의 모 음료 회사 광고에 출연한 주윤발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랑해요 XXX’라는 멘트를 하며 음료 캔에 키스를 하는 모습이 유명한 이 광고는 1989년 총 2편으로 제작되었다. 1편은 주윤발이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꽃다발을 건네고 함께 음료를 나눠 마시는 로맨틱한 콘셉트로 촬영됐고(아래 <그림4> 참고), 2편은 주윤발이 헬기의 추격을 오토바이를 타면서 피한 다음 음료를 마시는 와일드한 콘셉트로 촬영됐다(아래 <그림5> 참고).

<그림4> 주윤발 한국 음료 광고 1편¹⁶⁾



16) 영상 캡처 출처: <https://blog.naver.com/compooh7474/120210451424>, 검색일: 2023년 11월 14일.

〈그림5〉 주윤발 한국 음료 광고 2편¹⁷⁾

이처럼 주윤발은 나쁜 남자이지만 의리를 중요시하고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다정하면서 순정을 다 바치는 상반된 남자의 이미지로 남성 팬들과 여성 팬들을 두루 포섭하였다. 이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 그의 별명 ‘윤발이 형’, ‘윤발 따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남성 팬들 사이에서 ‘형’이나 ‘따거’라고 지칭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구가했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음료 광고에 대해서 “여성 팬들 사이에서는 음료를 마시면 주윤발과 은밀한 키스를 하는 기분이기에 이름이 밀키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돌기도 했다”¹⁸⁾라는 유언비어가 존재할 만큼 많은 인기를 끌었다.

당시 주윤발의 팬덤이 성별을 초월하여 남성과 여성 팬들 모두를 포섭했다는 것은 그가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군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팬들에게는 나쁜 남자이지만 나만을 사랑해 주는 남자로서 여성 팬의 판타지를 충족시켜 주는 존재이자, 남성 팬들에게는 멋지고 신의가 있는 모범적인 남성 롤모델의 존재였던 것이다. 또한, 1980년대 당시 한국 사회에 거세게 불었던

17) 영상 캡처 출처: <https://blog.naver.com/sonicmagnum/222000625496>, 검색일: 2023년 11월 14일.

18) 주성철, 「너희가 윤발이 형을 아느냐?」, 『씨네21』, 2010년 2월 16일.
출처: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59773, 검색일: 2023년 11월 14일.

‘민주화’의 요구와 이를 억압하려는 국가권력 사이에서 좌절을 맛보기도 했던 한국인들은 주윤발의 속 시원한 쌍권총 액션씬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고독한 눈빛과 다정한 모습은 상처를 보듬어 주고 위안을 주는 치유제로써 작용했다.

이처럼 1980년대 말 시대의 아이콘으로 군림했던 주윤발은 여전히 한국에서 소환되고 있다. 2020년 MBC 예능 <복면가왕>에서는 1994년생인 한 출연자가 ‘주윤발’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가왕이 되어 주윤발을 소환했다. 또 2021년 3월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2020.05.13.~2021.10.27.)은 2020년 한국 사회에 트로트 광풍을 몰고 온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2020.01.02.~2020.03.12)의 주역들과 함께 <영웅본색2>를 재연하였다. 당시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인 ‘임영웅’은 아버지가 <영웅본색>을 너무 좋아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영웅’이라고 지었다고 밝히며 당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영웅본색2>와 주윤발에 열광했었는지 입증하였고, 제작진과 출연진은 ‘영웅뽕색’이라는 패러디 물을 제작함으로써 그들을 재소환했다. 이는 <영웅본색2>와 주윤발이 한국 대중문화에 여전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4. 장국영: 원조 꽃미남 스타, 여성들의 영원한 오빠

10대 여성을 주요 팬층으로 하는 틴 아이돌(teen idol) 스타로서 원래 가수로 먼저 데뷔한 ‘장국영’은 음악을 메인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가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데 주력하여 중화권에서는 ‘알란 탐(譚詠麟)’, ‘매염방(梅艷芳)’과 함께 1980~90년대 가왕 3인방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홍콩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위기상 배우를 겸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에 출연해야만 했다. 한번 은퇴를 선언했다 복귀한 후 장국영은 왕가위(王家衛) 감독의 영화 <아비정전(阿飛正傳, Days Of Being Wild, 1990)>과 <해피투게더(春光乍洩, Happy Together, 1997)>, 천카이거

(陳凱歌) 감독의 <패왕별희(霸王別姬, Farewell My Concubine, 1993)> 등 작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영화들에 출연하며 연기력까지 인정받았고 명실상부한 중화권 최고의 스타로 군림했다.

<그림6> 장국영에 대한 설문조사1



<그림7> 장국영에 대한 설문조사2¹⁹⁾



한국에서 장국영은 주윤발과 함께 출연한 <영웅본색2>와 ‘왕조현(王祖賢)’과 함께 출연한 <천녀유혼(倩女幽魂, A Chinese Ghost Story, 1987)>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 두 작품은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은 ‘장국영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상위에 등장한다. 위의 <그림6>과 <그림7>은 2016년 4월 1일 장국영 사망 13주기를 맞아 설문 패널 사이트 ‘틸리언(Tillion)’²⁰⁾

19) 당시 필자가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사진인데, 현재 게시물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처표시를 하지 못하였다.

20) SK Planet에서 2013년부터 제공한 설문 패널 사이트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OK 캐쉬백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이 적은 간단한 설문조사는 주로 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포인트 적립이 많은 복잡한 설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 당시 5520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에서 <영웅본색2>와 <천녀유혼>이 각각 27.2%(1503명)와 24.3%(1342명)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배우로서 먼저 인기를 끌었지만, 영화 속 OST나 모 제과의 초콜릿 광고 시리즈에 삽입된 노래 ‘투유(To you)’로 가수로서도 사랑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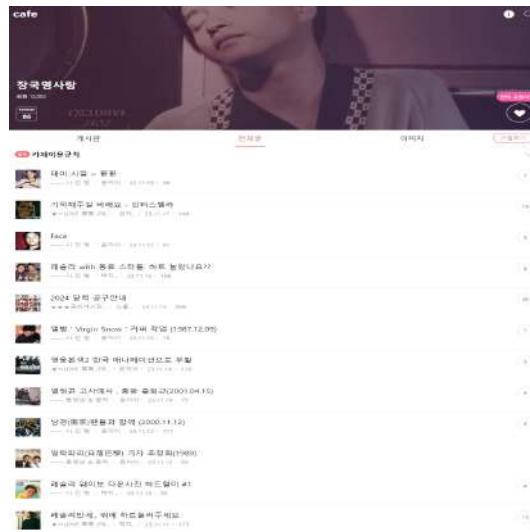
한국에서 홍콩 스타 팬덤은 장국영에 이르러 전환을 맞이했다. 이소룡과 주윤발 등 기존의 많은 홍콩 스타가 남성성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어필하였다면, 이들과 달리 장국영은 곱상한 외모와 연약한 느낌을 가진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가녀린 청년 이미지’, 소위 말하는 ‘꽃미남’ 스타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많은 팬을 확보했다. 특히 <영웅본색2>에서 주윤발과 대비되는 여성의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모습과 <천녀유혼>에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잘생긴 서생의 모습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며 당시 중화권 최고의 미남 스타로 많은 여성 팬을 확보했고 그의 팬덤은 이소룡과 주윤발과는 달리 여성들이 팬덤의 주축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장국영 팬카페 게시물 작성자들의 이름을 살펴 보면 잘 알 수 있다.(아래 <그림8> 참고)

2003년 장국영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국영의 한국 팬덤은 그의 사후에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그의 공식 한국 팬클럽인 ‘장국영사랑(<https://m.cafe.daum.net/leslie>)’은 1999년 개설되어 2023년 11월 19일 현재 회원 수가 12,055명으로 다음 카페의 팬덤랭킹에서 86등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에서 활동했던 다른 홍콩 스타들의 팬카페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숫자를 보여준다. 1970년대 절대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이소룡 팬카페의 회원 수가 3,657명, <영웅본색2>에 같이 출연하여 1980년대 후반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군림했던 주윤발의 팬카페는 다음과 네이버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장국영 팬카페의 회원 수는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국영이 여성 팬을

문조사는 웹페이지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 설문 패널 사이트의 특성상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포인트 적립이 낮은 설문은 참여자의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없는 설문일지라도 단순히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설문에 참여할 수도 있다.

타깃으로 하는 틴 아이돌 스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대중문화 팬덤에서 여성 팬의 활동이 남성 팬보다 활발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이 때문에 대중문화 팬덤을 여성의 하위문화로 치부하며 팬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면이 있지만 말이다.

〈그림8〉 장국영 팬카페 메인화면



장국영의 인기는 그가 틴 아이돌이었다는 정체성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활동 시기가 완전히 겹치지는 않지만, 장국영이 활동하던 시기에 유사한 이미지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많은 홍콩 스타가 있다. 대표적으로 ‘홍콩 4대 천왕’과 ‘대만 4소 천왕’이 있는데 이들의 한국 팬카페 회원 수는 2023년 11월 14일 현재 유덕화 2,300여 명을 제외하고 많으면 200여 명 적으면 몇십 명, 그리고 아예 검색조차 되지 않는 등 거의 와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장국영의 한국 팬카페는 장국영 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 세계 팬들과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하고 종이학 접기 기네스 기록에도 도전하는 등 그의 사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오빠’를 그리

고 추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원들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²¹⁾

일반적으로 팬덤은 팬과 그 팬의 '덕질' 대상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팬 대상이 부재하면 자연스럽게 팬덤은 와해된다. 하지만 장국영의 팬덤처럼 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팬이 팬덤으로 유입되는 것은 장국영이라는 스타가 여전히 팬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만의 매력적인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국영이 가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꽃미남 스타로서의 이미지, 가수와 배우로 모두 성공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성적 정체성을 커밍아웃하며 시대에 저항적인 면모 등은 1990년대 'X세대'로 대표되는 세기 전환기의 자유로운 시대 분위기와 맞물려 한국에서 장국영을 더욱 특별한 스타로 만들었다. 거기다 요절한 비운의 스타에 대한 안타까움과 향수는 장국영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공고히 자리매김하며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소환하고 있다. 장국영은 2013년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주연배우 중 한 명이 제작진에 의해 초반 '삼천포 장국영'으로 설정되어 대중매체에서 자연스럽게 소환되었다. 또한, 그의 마지막 유작 <이도공간(異度空間, Inner Senses, 2003)>이 디지털로 복원되어 2021년 8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극장 개봉을 하였으며, 그가 사망한 4월 1일이 되면 매년 거의 빠짐없이 장국영을 추억하는 기사들이 게재된다. 영원히 늙지 않는 '오빠'로서 장국영은 팬들의 가슴 속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심장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21) 오유정은 장국영의 초국적 팬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 있는데 그에 따르면 장국영 사후 팬이 되는 사람들도 상당수였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유정, 「후(後) 장국영 시대 팬덤의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中國學論叢』, 第60輯, 서울: 高麗大學校中國學研究所, 2018 참고.

5. 결론

이처럼 이소룡과 주윤발, 장국영 등의 홍콩 스타들은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며 한국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우리나라 배우보다 중화권 배우들이 더 인기 있었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홍콩 스타들에 대한 팬덤이 활발히 구축되고 있던 시대를 이끈 ‘트로이카’라고 공언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주윤발과 장국영은 한국에서 비교적 활발히 활동하였는데 한국광고계에 진출하기도 하고 콘서트를 열기도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대중에게 친근하게 어필하였고 각기 다른 기호와 이미지로 팬덤을 구축하였다. 이들은 당시 한국 스타를 능가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아시아 대중문화에서 진정한 초국적 활동을 한 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약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홍콩영화가 1997년 대륙으로의 반환과 일본영화의 부상, 속편과 아류작의 남발로 인한 홍콩영화에 대한 흥미 감소, 한국영화의 발전 등 국내외적인 여러 요소로 인해 점차 한국에서 그 위상이 추락하고, 그 자리를 ‘한류’가 채우면서 홍콩 스타들의 입지는 좁아졌다. 그러나 홍콩영화와 홍콩 스타의 흔적은 한국 대중문화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이소룡, 주윤발, 장국영은 이후 한류스타의 초국적 활동과 한류 팬덤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줬다. 이소룡의 팬덤은 남성 중심의 팬덤이고, 주윤발의 팬덤은 남성과 여성 팬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팬덤으로, 여성 중심의 대중문화 팬덤에 남성 팬들을 유인하였으며 남성 팬들이 대중문화 팬덤에서 활동하고 입지를 구축하는 원형적 모델을 제공했다. 남성 팬들의 대중문화 팬덤 경험은 한류 아이돌 2세대의 걸 그룹들이 한류 아이돌 문화산업을 이끌던 시기, 소위 ‘삼촌 팬’들이 팬덤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로 부상하였을 때 참조점이 되었다. 이소룡과 주윤발 팬덤의 남성 팬들의 존재와 활동은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대중문화 팬덤에서 남성 팬들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한류 아이돌 걸 그룹들의 3~50대 삼촌 팬들 중 일부 연

령대는 이소룡과 주윤발의 한국 수용과 팬덤 형성 시기를 거쳤던 팬들이다. 물론 한류 걸 그룹의 삼촌 팬들이 이소룡과 주윤발의 팬으로 직접활동을 하였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시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두 스타의 팬과 팬덤의 활동을 직접 목도했던 이들이 삼촌 팬으로서 대중문화 팬덤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로 등장했을 때, 이들이 이전 시대의 이소룡과 주윤발의 남성 팬들의 활동을 자각적이든 비 자각적이든 참조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주윤발과 장국영 팬덤의 여성 팬들은 ‘나쁜 남자, 의리남, 순정남’, ‘꽃미남’이라는 각기 다른 기호와 이미지를 가진 남성 스타에 주목함으로써 ‘남성다움’을 극도로 부각하고 이를 추종하였던 이전의 남성 스타 팬덤에 균열을 내고 다양성을 제공했다. 이는 이후 한국 대중문화에서 남성 스타의 다양한 기호와 이미지 구축에 원형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팬덤 문화 형성에 일조하였다.

장국영의 경우 가수와 배우를 겸업하면서 만능 엔터테이너 스타의 원형적 모델로서 이후 한국 대중문화에서 자신의 영역과 경계를 뛰어넘어 활동하는 스타들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한국 연예계에서 가수와 배우의 경계는 명확했고, 겸업을 하면서 두 영역에서 성과를 내었던 스타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장국영 이후 여러 홍콩 스타들의 가수와 배우 겸업, 그리고 성공적인 입지 구축을 목도했던 한국 연예계에도 ‘김민중’, ‘손지창’과 같은 겸업 스타들이 등장하였고, 본격적으로 한류 산업과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제 한류 스타의 가수와 배우 겸업 활동은 흔한 일이 되었다. 또한, 주윤발과 장국영은 홍콩을 넘어 한국에서도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아시아권에서 진정한 초국적 활동을 펼친 스타로서 이후 한류스타들의 초국적 활동의 모델이 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소룡, 주윤발, 장국영과 같은 홍콩 스타의 한국 수용과 홍콩 스타의 팬덤은 한국 대중문화와 한류스타의 초국적 활동, 한류 팬덤 문화 형성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參考文獻

- 구회영, 『영화에 대하여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서울: 한울, 1991:1994.
- 임대근, 「장르: 중국영화의 갈래들」, 『중국영화의 이해』, 서울: 동녘, 2008.
- Geoffrey Nowell-Smith 편집, 이순호 외 옮김, 「홍콩의 대중영화」, 『옥스퍼드 세계영화사』, 서울: 열린책들, 2005.
- 강경석, 「분노의 주먹: 브루스 리·리 샤오룡·이소룡」, 『플랫폼』 2008년 5·6월호(통권9호), 인천: 인천문화재단, 2008.
- 안영은, 「이소룡(李小龍) 신화는 끝나지 않았다」, 『중국현대문학』 제78호, 서울: 한국현대문학학회, 2016.
- 이영재, 「중공업 하이모던 시대의 아시아적 신체-1970년대 한국에서의 홍콩영화의 수용」, 『여성문학연구』 제30호, 서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 오유정, 「후(後) 장국영 시대 팬덤의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中國學論叢』, 第60輯, 서울: 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所, 2018.
- 金貞恩, 「香港電影轉入韓國的歷史與現狀」, 『韓中言語文化研究』 第18輯, 서울: 社團法人 韓國現代中國研究會, 2008.
- 유하, 『이소룡 세대에 바친다』, 광주: 문학동네, 1995.
- 주성철, 「너희가 윤발이 형을 아느냐?」, 『씨네21』, 2010년 2월 16일.
<https://cafe.naver.com/lxl>
<https://cafe.naver.com/lxl/14461>
<https://cafe.naver.com/lxl/1444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62
 8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816&cid=43667&categoryId=436>
 67
<https://blog.naver.com/compooh7474/120210451424>
<https://blog.naver.com/sonicmagnum/222000625496>
<https://m.cafe.daum.net/leslie>

Abstract

Acceptance of Hong Kong Stars and the Cultural Implications of their Fandom in South Korea

Kim, Jung Eun

The influence and impact of Hong Kong stars on the landscape of Korean popular culture has been significant. This paper aims to scrutinize the acceptance of Hong Kong stars within Korea and to delve into the cultural implications stemming from the fervent fandom surrounding these personalities. Specifically, attention is directed towards Bruce Lee, Joo Yun-bal, and Jang Kook-young, three prominent Hong Kong stars who cemented their status as cultural icons i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the 1970s to the 1990s.

Bruce Lee gained acceptance in Korea embodying a hybrid identity, recognized both as an "actor" within Hong Kong cinema and as a "martial artist (or sportsman)" dedicated to practicing the martial art form of "Jeet Kune Do." His fan base primarily comprised male admirers. Zhu Yunbal fashioned a dual persona, characterized as both a rebellious figure and a paragon of loyalty and purity. As a gender-neutral symbol of his era, his fan base appealed to audiences encompassing both male and female admirers. Jang Kuk-young, recognized as the original flower boy star, retained a predominantly female-dominated fan following even after his demise.

The male fans of Bruce Lee and Joo Yun-bal notably suggested the roles and potentials of male followers within a predominantly female-driven domain of pop culture fandom. Simultaneously, Joo Yun-bal and Jang Kook-young introduced a range of diversity to South Korea's reception of male celebrities by portraying images distinct from prevailing masculine stereotype. Their reception in Korea, along with their respective followings, significantly impacted the transnational activities of Hallyu (Korean Wave) stars and the evolution of Korean wave fandom culture.

Key words : Hong Kong stars, Hong Kong star fandom, Bruce Lee, Joo Yun-bal, Jang Kook-young, transnational activities of Hallyu stars, Korean wave fandom culture

투 고 일 : 2023. 10. 10. / 심 사 일 : 2023. 10. 15. ~ 2023. 11. 15. / 게재확정일 : 2023. 11. 20.